

## 전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긍정심리자본 매개효과 검증

김수현\*, 임황빈  
강원도립대학교 ICT드론과

###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o hyun, Kim\*, Hwang bin, Yim  
Department of ICT & DRONE, Gangwon St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사회적 지지는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를 위해 G 대학교 24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준비행동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의 절차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셋째,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대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의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career support for professional college students affec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specific research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preparedness? Second, does social suppor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directly affec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does social support influence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supply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For this purpose, the subjects were 240 students from G college.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examine the study's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suppor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ll hav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Second, social suppor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n impact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there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result of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that is the foundation for professional career guidance and career education of professional college students.

**Keywords** : College Education, Social Support,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Soo hyun Kim(Gangwon State Univ.)  
email: kflie5084@hanmail.net

Received July 24, 2019  
Accepted November 1, 2019

Revised August 26, 2019  
Published November 30, 2019

## 1. 서론

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현재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와 불투명한 취업전망 등의 이유로 인해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

특히 전문대학생은 짧은 대학생활 후에 바로 취업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인으로 진입해야 하는 부담감과 더불어 취업기능을 강화한 4년제 대학 학생들로 인한 구직스트레스를 겪게 된다[2]. 이러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 전문대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따른 여러 진로준비를 하게 되고, 이는 모든 취업문제 해결과정인 진로준비행동들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은 청소년 시기에 자기이해를 충분히 거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성장함에 따라 자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이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더욱 배가시키는 원인이 된다[3]

실질적으로 대학실태조사[4], 대학교육만족도 조사[5], 졸업 연기 현황 및 정책[6]의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과 관련한 어려움의 응답율이 높았으며, 진로상담 및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만족도, 진로문제가 졸업유예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학들은 자구책으로 진로와 취업 지원 정책을 정비하고 진로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2016학년도에 대학생을 위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생의 진로교육 인식개선과 대학 인프라 활용 지원체계 마련, 진로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진로 교육 지원을 위한 교직원 전문성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7]

국내에서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김봉환[1997]은 대학생들의 진로준비에 있어서 인지나 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행동적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즉 진로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성숙하다고 해도 실제 준비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진로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가정하였다[8].

실제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8-10]. 남학생이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더 높게 나타난 경우[9-11],

반면 여학생이 남학생들 보다 더 높은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12]로 상반된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이 있는 변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13], 불안[14], 성취동기[15], 희망[16], 긍정심리자본[17], 주관적 행복감[18]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어져왔다.

조영아, 정지은[19]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 진로 결정수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은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가 나타났으며, 변인 중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둘째,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장벽의 하위 구성요인별 효과크기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 진로준비행동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 구성요인인 진로계획과 자기평가가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셋째, 대학생 진로준비행동의 하위 구성요인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효과크기는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실천적노력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 유형에 따라 대학생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효과크기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불안, 진로장벽과 같은 변인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 성취동기,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변인들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시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현실의 직업 환경에서는 개인의 긍정적 자원, 사회적 지지 등을 통한 발달과 성장의 관점에서 자신의 진로를 유연하고 주도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하는 탄력적인 태도나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적 변인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효과와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 개인 심리적인 변인 긍정심리자본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말한다[20]. 사회적 지지 관련 선행연구들[13, 20-22]은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들의 발달단계에서 요구하는 과업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고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은 현재를 포함한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긍

정적인 낙관성, 근본적인 과업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기 효능감, 난관 또는 좌절로부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거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아탄력성, 목표를 향한 인내와 필요시에 목표를 재설정하며 역경이나 문제에 직면할 경우 성공을 위해 견디는 희망 등의 복합적인 심리상태를 뜻한다[17].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취업 시장 상황에서 성공을 위한 긍정심리자본을 갖춘다면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과 이를 신장하는데 필요한 역량 배양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긍정심리자본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성숙[23], 진로적응성[24], 진로준비행동[17]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 및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25]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사회적 지지가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26]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긍정심리자본은 사회적 지지의 매개변인으로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변인간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지지 변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변수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진로 및 상담지도를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은 어떠한가?
- 둘째,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사회적 지지는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에 소재한 G대학교 남, 여 대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약 1주일간 총 250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을 한 10

부를 제외한 240부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성별에서는 남자 109명(45.4%), 여자 131명(54.6%)로 나타났으며, 1학년 102명(46.7%), 2학년 128(53.3%)으로 나타났다.

### 2.2 측정도구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도구 [27]를 조명실[2007]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8]. 이 척도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개 하위 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식 4점 척도로 평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 척도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하위 요인별로 정서적지지 .84, 정보적지지 .89, 물질적지지 .94, 평가적지지 .93, 사회적 지지 전체는 .96이었다.

진로준비행동은 김보환(1997)이 리커트 4점 척도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통계분석 위하여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한 김옥경(2018)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29]. 이 척도는 정보수집행동, 도구구비행동, 목표달성행동의 3개 하위요인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식 5점 척도로 평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척도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하위요인별로 정보수집행동 .74, 도구구비행동 .79, 목표달성행동 .77, 진로준비행동 전체는 .85이었다.

긍정심리자본은 Luthans 외(2006)가 개발한 도구를 [30] 정은영(2013)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31]. 이 척도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탄력성의 4개 하위 요인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식 5점 척도로 평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긍정심리자본 척도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하위요인별로 자기효능감 .74, 희망 .79, 낙관성 .73, 탄력성 .75 진로준비행동 전체는 .88이었다.

### 2.3 자료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전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인의 효과는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계수를 살

퍼보는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1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후,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 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을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유의한 베타계수가 매개변수인 도입되었을 때 유의하지 않게 되면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이 완전 매개 변인이 된다. 또는 베타계수가 감소하지만 여전히 유의한 경우에는 부분 매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매개효과를 분석 후 매개효과가 나타날 경우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 긍정심리자본 상관관계

본 연구의 분석에 설정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rson 적률상관계수에 의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social support, career preparation ac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ub-factors correlati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②	.86**													
③	.87**	.91**												
④	.83**	.85**	.88**											
⑤	.43**	.30**	.35**	.38**										
⑥	.19**	.01	.06	.06	.51**									
⑦	.39**	.20**	.25**	.23**	.48**	.62**								
⑧	.66**	.60**	.61**	.53**	.31**	.10	.29**							
⑨	.63**	.54**	.55**	.53**	.26**	.07	.29**	.76**						
⑩	.48**	.42**	.46**	.38**	.21**	.08	.18**	.62**	.63**					
⑪	.29**	.19**	.19**	.21**	.15**	.14*	.22**	.31**	.35**	.43**				
⑫	.94**	.95**	.96**	.93**	.39**	.08	.29**	.63**	.59**	.46**	.23**			
⑬	.38**	.18**	.24**	.25**	.76**	.88**	.85**	.27**	.23**	.18**	.20**	.28**		
⑭	.66**	.57**	.58**	.53**	.30**	.12	.31**	.87**	.88**	.83**	.61**	.62**	.28**	

①emotional support ②information support ③material support ④Evaluative support ⑤Information gathering behavior ⑥Tool behavior ⑦Goal Completion ⑧Self-efficacy ⑨Hope ⑩Optimistic ⑪Resilience ⑫Total social support ⑬Total career preparation action ⑭Total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05, \*\*p<.01

Table 1의 상관 행렬표는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 긍정심리자본 각 변인들 간에는 전반적으로 p<.05, p<.01 수준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8, p<.01). 또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8, p<.01). 마지막으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8, p<.01).

#### 3.2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β	t	F	R <sup>2</sup>
	B	Standard error				
social support	.32	.07	.28	4.62**	21.34**	.08

\*\*p<.01

Table 2에서 보면 사회적 지지 변수  $\beta$ 값은 .28( $p < .01$ )로 진로준비행동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8%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결과는 F값이 21.34(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3.3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ation factor		$\beta$	t	F	$R^2$
	B	Standard error				
social support	.44	.03	.62	12.19**	148.73**	.38

\*\* $p < .01$

Table 3에서 보면 사회적 지지 변수  $\beta$ 값은 .62( $p < .01$ )로 긍정심리자본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38%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결과는 F값이 148.73(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3.4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심리자본 매개효과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조건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매개변인으로 긍정심리자본, 종속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으로 두고,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에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심리자본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 Fig. 1과 같다.

Table 4. Mediated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tep	Variable	$\beta$	t	F	$R^2$
1	① → ②	.62	12.19**	148.73**	.38
2	① → ③	.28	4.62**	21.34**	.08
3	① → ③ ②	.18 .16	2.32* 2.14*	13.13**	.39

① social support ②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③ career preparation action  
\* $p < .05$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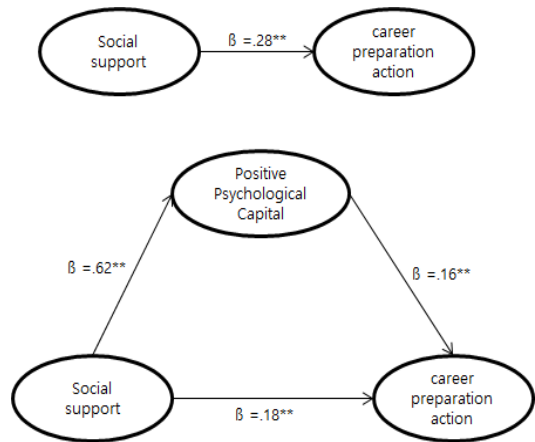


Fig. 1. Mediated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p < .01$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력( $\beta = .62$ ,  $p < .01$ )이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beta = .28$ ,  $p < .01$ )도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았을 때, 매개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의 영향력이( $\beta = .16$ ,  $p < .01$ )이 유의하면서도 사회적 지지 영향력( $\beta = .28$ 에서  $\beta = .18$ )이 감소하였으므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만족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아직 유의하므로 긍정심리자본은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Sobel(1982)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 = 1.54$ ,  $p < .01$ )

####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사회적 지지가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다는 선행연구들[13, 20-23]과 일치한다. 이는 안정된 사회적 지지를 받은 대학생은 긍정적인 자아를 발달시키게 되면서 사회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적응능력이 발달함을 의미한다. 또한 적극적인 탐색능력은 실질적인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진로준비를 하는데 있어 함께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될 것이다[32]. 사회적 지지를 통한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는 개인의 긍정적 행동을 촉진시키며 나아가 진로에 대한 전반적 준비행동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대학의 진로 관련 상담 후 프로그램 개발 시 사회적 지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17, 23-24]과 일치한다. 이는 전문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과 같은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정서 개발을 병행할 때 보다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어려움 그 자체보다는 그들의 심리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요구되는 것으로 지도교수와 상담가는 진로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심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과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행동, 진로자기결정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13, 20-22, 25]. 이는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개입이 중요하며, 부모, 가족, 교수, 친구, 대학상담센터의 상담원 등 관련인의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원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안전망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타인의 관심인 정서적 지지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새로운 정보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 등을 통하여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생 대상의 진로설계 시 사회적 지지와 긍정심리자본을 통합적으로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6]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생들에게 최적화된 다양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러한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생들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심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위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 대상을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과 일반대학생들과의 비교 연구 및 질적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통계적 검증방법에 있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나, 사회적지지, 긍정심리자본,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방향에 대해서는 시사하기 어렵다. 이에 구조회귀방정식을 통해 변인 간의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J. U. Kim, S. S. 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6., No. 3, pp.123~141, 2013.

- [2] H. J. Cho.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 of College Life Adaption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Adaptability among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5., No. 3, pp.61~75, 2012.
- [3] B. K. Kim, C. Y. Jyung.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L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44., No. 2, pp.49~71, 2012.
- [4]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life opinion survey. 2015
- [5]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University Education Satisfaction Survey(2007년~2012년). 2013.
- [6] C. G. Che. The Status and Policy for Delaying College Graduation, KRIVET Issue Brief,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no. 108, 2016.
- [7] Ministry of Education. Second career education 5-year basic plan. 2016
- [8] B. W. Kim,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Vol. 9, No. 1, pp.311~333, 1997.
- [9] J. H. Jeong. M. S. Won. S. J. Le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ork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7, pp.228~237, 2013.  
DOI : <https://doi.org/10.5392/JKCA.2013.13.07.228>
- [10] S. B. You. H. M. Yoon.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and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9, No. 3, pp.405~421 2014.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14.19.3.405>
- [11] J. Y. Hwang, J. H. Park. "A Structural Analysis of 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Related to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College Studentr".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4, No. 5, pp.73~101. 2015.
- [12] S. Y. Lee. Y. M Lee. "Analytical Results of Panel Survey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12, No. 3, pp. 73~78. 2009.
- [13] Y. J. Joo. K. Y. Go. Y. J. Jin. "The Effects of Positive Affect,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utcome Expectan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Caree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8 No. 3, pp. 65~83. 2015.
- [14] E. J. Oh. "Effect of Trait Anxiety on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7 No. 2, pp. 85~107. 2014.
- [15] Y. H. Son.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Career Decis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29. No.1, pp. 235~253. 2010.
- [16] A. R. Cha, H. Y. Lee.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and Environmental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ope as a Mediating Variable" *Koeran Journal of Counselling*. Vol. 15. No.1, pp. 343~358. 2014.
- [17] S. O. Kim, E. J. Oh. "The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Vol. 17. No.1, pp. 143~155. 2019.
- [18] Y. H. Chang, J. S. Lee, E. S. Sin. "The Relations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Happines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4. No. 3, pp. 163~184. 2016.
- [19] Y. A. Cho, J. U. Jeong. "A Meta-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Career Developm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3, pp. 129~150. 2017.
- [20] S. Y. Park. "An Analysis of a Mediation Effect that Social Support has on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Studentsin College of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2, pp. 169~193. 2017.
- [21] J. U. Kim, H. H. Kim. "The Influences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6, pp. 797~814. 2016.
- [22] D. A. Jung, A. J. Ho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Everyday Creativ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Education Inquiry*. Vol. 33. No. 2, pp. 39~59. 2015.
- [23] J. H. Sin, J. I. Hue, Y. C. Jang. "A Study on the Strategic Method for Career Maturity of Job Applicant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9. No. 1, pp. 117~144. 2019.
- [24] Y. H. Chang. "The Medit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Adaptability in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Result expecta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21, pp. 451~469. 2017.
- [25] Li, B., Ma, H., Guo, Y., Xu, F., & Zhou, Z.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 new approach to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42. No. 1, pp. 135~144. 2014.

- [26] A. R. Choi, S. Lee. "Effect of Temperament and Social Support on the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55. No. 3, pp. 249~261. 2017.
- [27]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1985.
- [28] M. S. Cho. "The Influence of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Late Adolescence" SungKyunKwan University. 2007.
- [29] O. K.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the university students' Career plann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ability" Chung-Ang University. 2018.
- [30] Luthans. F.·Avolio. B. J.·Avey. J. B.·Norman. S. M.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Vol. 60. No. 3, pp. 541~572 2014.
- [31] E. Y. Jeong.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Barriers and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girls" Myongji University. 2013.
- [32] S. B. You, H. M. Yoon.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and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9. No. 3, pp. 405~421 2014.  
DOI : <https://doi.org/10.13049/kfwa.2014.19.3.405>

임 황 빈(Hwang bin Yim)

[정회원]



- 2003년 2월 : 순천향대학교 전기 전자공학과 정보통신전공(공학 박사)
- 2003년 3월 ~ 2018년 2월 : 강원도립대학교 정보통신과 교수
- 2018년 3월 ~ 현재 : 강원도립대학교 ICT드론과 교수

<관심분야>

정보보호, Communication Application System, 교육품질관리, 전문대학직업교육, 취업 · 진로 상담

김 수 현(Soo hyun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교육학 박사)
- 2009년 3월 ~ 2009년 12월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BK Post Doc.
- 2010년 3월 ~ 2018년 7월 :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강원도립대학교 ICT드론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학, 교수설계, 전문대학 교육, 학습과정